

제목 Theme: 베데스다 사람 The Man of Bethesda

본문 Scriptures: 요한복음 St. John 5:1-10 절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After these thing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five porticoes**

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헐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In these lay a multitude of those who were sick, blind, lame, and wither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s;**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될이러라] **for an angel of the Lord went down at certain seasons into the pool and stirred up the water; whoever then first, after the stirring up of the water, stepped in was made well from whatever disease with which he was afflicted.**

5.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A man was there who had been ill for thirty-eight years**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had already been a long time in that condition, He said to him, "Do you wish to get well?**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walk**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Immediately the man became well, and picked up his pallet and began to walk. Now it was the Sabbath on that day**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So the Jews were saying to the man who was cured, "It is the Sabbath, and it is not permissible for you to carry your pallet.**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1 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today's text, while introducing the ministry of our Jesus, the gospel of Jesus started in Galilee, went to Jerusalem, and then came back to Canaan and healed the dying the military servant's son with his father's faith. It is written, "After that there was a Jewish feast,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verse 1).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2-3 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닐다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위로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Our Jesus went up to Jerusalem to observe the Jewish festival, and said, “There is a pond in Jerusalem called Bethesda in Hebrew by the Sheep Gate, and there are five tents, and in it lay many the sick, the blind, the lame, and the withered. They were waiting for the water to move” (verses 2-3). Our Jesus Walked in Jerusalem There was a pond in Bethesda, which means 'grace'. It is recorded that many sick people were waiting for the water to move around the pond.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 병을 낫게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망의 이유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4 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hy are so many sick people gathered by the pond of Bethesda? It was because of the hope that a disease that no one could cure could be cured. The reason for that hope is recorded, “Angels come down from time to time to move the water, and whoever enters first after the water moves will be healed of whatever disease he has” (verse 4).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고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소문은 실제로 치료된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It was because of the rumor that the angel will come down, but when the angel comes down, the water moves, and whoever enters first after the water moves will be healed of any disease. I don't know how many people have been treated here, but there must have been cases where this rumor was actually cured.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 병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또는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 수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자 등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자 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The sick people who are being introduced here are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cannot be solved by human strength or even by medicine and science. It is introduced that there were blind people, lame people, and people with dry blood. The phrase “an angel

came down from time to time” in the text means that God, who is the absolute, is doing it.

치료자는 천사들을 보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직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있었던 사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It is recorded that the healer was done by God who sent the angels, but he was the first person to enter after the water moved. I haven't seen this in person, but it's a fact that has traditionally been the reason why so many sick people have gathered.

그곳에 “삼십 팔 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5절). 그가 병이 걸린 것이 38년인지, 이 연못에서 기다린지 38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오랜 기간 그곳에서 병을 낫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There was “a man who was thirty-eight years after ill” (v. 5). It is not known for sure whether he was ill for 38 years or waited in this pond for 38 years, but it is known that he was one of those who had been waiting there for a long time to be cured.

그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6절)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병자에게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Our Jesus asked the sick man, “When Jesus saw him lying down, He knew that He had been ill for a long time, and said to him, “Do you want to get well?” (verse 6). This was a natural question for the sick. Still, our Jesus asked the sick man. He would have to answer our Jesus' question with “yes, yes”.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7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넣어 주기만 하면 나를 수 있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절망적이라는 내용입니다.

But he gave the following reasons: “Lord!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nd when the water moves, so while I am going, someone else goes down first” (verse 7). He says that if someone put it in the pond when the water is moving, I can get better, but there is no one to put it in, so it is hopeless.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항상 절망적인 자신의 환경을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Lotto** 를 하나 사서 그것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천사가 언제 내려와 물을 둘하게 할 줄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줄 모른다는 내용으로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That's right. In our lives, there are people who can solve themselves without anyone's help, but there are people who always grieve for their desperate circumstances because there is no one to help them. Just like a person who buys a lottery and waits for

it to win, it is the feeling of waiting with the content that an angel may come down and stir the water, but that there will be a chance someday.

그런 중에서도 그에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를 그 옷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어렵지만 그 기적이 와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Among them, he has another problem. “Even if an angel comes down and moves the water, no one will put me into the pool.” Miracles are difficult, but even if they do come, they express the desperate feeling that they cannot make them their own without someone's help.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8** 년을 낫고자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포기하고 이곳에 오지 않는 수많은 병자에 비하면 그래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을 알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절망과 같은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 절)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Still, we can see that he did not give up and waited 38 years to get better. Compared to the many sick people who give up and don't come here, this is an environment where we can see his earnest desire to get better. To him who was in despair, our Jesus commanded, “Get up, pick up your bed and walk” (verse 8).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해도 되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갔다”(**9** 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실천해서 그 **38** 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병이 낫아 그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These words of our Jesus are not a request that we can put into practice or do not have to put into practice, but as an absolute command from God. Then it is recorded that “the man was soon healed and took up his mat and walked” (verse 9). It is not that he was cured of the disease that he had been lying in bed for 38 years by following the command of our Jesus, but that he was healed by the command of our Jesus before he got up and that he got up.

우리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기적이지 그가 실천하는 것이 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기적과 능력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Jesus' command itself is a miracle, and what he does is not a miracle. A miracle happened at the command of our Jesus, and the sick man who experienced the miracle picked up his bed and walked. It cannot but be a great miracle, power, and joy.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9** 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하다”(**10** 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은 사람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But the Jews said, “It is the Sabbath, an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take up your mat and go” (verse 10) because the Jews said, “It is the Sabbath, and it is not lawful for you to carry your bed,” because the Jews religiously performed these miracles on the Sabbath (verse 9). And the man who was healed did not know exactly who had commanded him, “Take up your bed and walk.”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38** 년 동안 낫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병자는 분명히 들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And there were a lot of people at that time, and he said that he could not find Jesus who had commanded him in that many people. Then, we can see that Jesus did not command loudly so that millions of people could hear it, but that the sick man who had been waiting for him for 38 years to be healed clearly heard what he said.

본문 이후에 그 병 낫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14 절)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15 절) 라고 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passage, the man who was healed met Jesus in the temple, and our Jesus said to him, “You are well, and sin no more so that nothing worse happens” (verse 14). He introduces to Jew what It was Jesus who healed him” (verse 15).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Through today's text, we have the content of what Jesus wants to say to us.

먼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5 절 “거기 삼십 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First, we must become saints who live without losing hope (verse 5, “There was a man who was thirty-eight years old.”)

1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로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 로마서 12:12 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 In order not to lose hope, we must always work hard in prayer – Romans 12:12
“Rejoice in hope, be patient in afflictions, be steadfast in prayer”**

2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 로마서 15:13 절 “소망의 하나님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 In order not to lose hope, w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 Romans 15:13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through faith,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3 소망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 로마서 5:4 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3 Hope comes true in the providence of the Lord – Romans 5:4 “Patie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둘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8 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Second, we need to meet Jesus in order to make our hopes come true (verse 8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bed and walk”).

1 소망은 이루어져야 기쁨이 있습니다 – 잠언 13:12 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1 Hope comes to be found joy – Proverbs 13:12 “A wish is slow to come true, it hurts the heart, but the fulfillment of a wish is a tree of life.”

2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 고린도후서 3:12 절 “우리가 이 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 시편 71:5 절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니이다”

2 Hope can only be spoken with boldness when we meet Jesus – 2 Corinthians 3:12 “We have such hope, so we speak with boldness” – Psalm 71:5 “O Sovereign Lord! You are my hope and my trust from my youth.”

3 소망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 시편 39:7 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3 Hope must be in Jesus - Psalm 39:7 “Lord! What can I hope for? My hope is in You.”

셋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14 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Third, in order to achieve our hope, we must not sin (verse 14, “Sin no more, lest something worse happen”).

1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 주님 안에서 의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 잠언 10:28 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1 In order for the hope to come true, we must have our sins forgiven and live the life of the righteous in the Lord – Proverbs 10:28 “The hope of the righteous brings joy, but the hope of the wicked is cut off.”

2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 로마서 5:5 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2 In order to make our hopes come true, we must have the love of God – Romans 5:5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3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를 통하여 의를 이루고 기다려야 합니다 – 갈라디아서 5:5 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3 We must wait for righteousness through repentance in order to fulfill our hope – Galatians 5:5 “We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through faith in the Holy Spirit”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은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During our saints living in this world, there are not a few hopeless and hopeless lives. The only way to solve it is to meet the Almighty Jesus. And the difficult circumstance is that a lot has been done because of sin. Repentance is th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repentance, we can meet Jesus, receive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experience it through the Holy Spirit.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Dear saints of faith!

I pr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ou will live a victorious life by receiving the Lord's love through faith without losing hope in your life. Amen